

우치동물원 사료 쓰레기 야산에 수개월 무단 투기

중턱까지 오염 ... 침출수 흘러 악취 진동

광주시 북구 생동동 우치동물원이 동물원 내 야산에 수개월간 동물 먹이 '부산물(副産物)'을 무단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무단투기로 인해 공원 인근이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

14일 기린과 개(犬) 우리에서 직선 거리로 50m 떨어진 야산 중턱에는 무단투기 된 넓이 66.1㎡·높이 50cm 가량의 코끼리 먹이 부산물(糞)이 산란 환경도 크게 훼손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동물원 인근 야산 중턱이 먹이 부산물로 오염되면서 침출수가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 마을 앞 저수지 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 먹이 부산물 더미가 부패하면서, 주변은 악취로 진동하고 있으며, 관람객 정모(33·서구 농성동)씨는 "술선수범을 보아야 할 공공기관이 사업장 폐기물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느냐"며 "그동안 먹이 부산물 처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주 한 차례 이상 위탁계약(수거비용 20만원)을 맺은 광주의 한 비료업체에게, 먹이 부산물은 담양의 한 퇴비 공장에 수거(수거비용 2만원)를 맡기고 있다. 그러나 먹이 부산물의 경우 폐기물로 분류돼 관할 구청에 종류·양을 신고한 뒤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관련 규정을 어기고 인근 야산에 버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동물원 인근 야산 중턱이 먹이 부산물로 오염되면서 침출수가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 마을 앞 저수지 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 먹이 부산물 더미가 부패하면서, 주변은 악취로 진동하고 있으며, 관람객 정모(33·서구 농성동)씨는 "술선수범을 보아야 할 공공기관이 사업장 폐기물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느냐"며 "그동안 먹이 부산물 처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우치 동물원 관계자는 "규정대로 처리해야 하는데, 먹이 부산물의 양이 일정치 않는데다 처리하기가 귀찮아 직원들이 인근 야산에 무단투기한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alee@kwangju.co.kr

불법 다단계업체 2곳 고발 공정부,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업을 한 '메리케이코리아'와 'CNH이노비브'를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리케이코리아는 2002년 1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방문판매업 신고만 한 채 다단계판매 조직을 통해 화장품 등을 판매해왔다.

또 CNH이노비브는 2007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를 해왔다. 연합뉴스



“독도를 수호하자” 서예가 김동욱(58)씨가 14일 오후 광주시 남구 서동 대성초등학교에서 소나무에 말꼬리털을 붙여 만든 대형 붓으로 60m의 천에 ‘독도를 수호하자’는 내용의 글을 쓰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묘지 참배객 발길 ‘복적’

30주년 행사 시작 ... 체험학습·수학여행·소풍 장소 인기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출범에 이어 전국적인 각종 행사가 본격 시작되면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는 참배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

14일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5·18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 수는 9만1천7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9천134명)보다 55.1%(3만2천595명) 늘었다. 올 들어 하루 평균 1천199명의 참배객이 다녀간 셈이다.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사기업·교원단체 등 단체 참배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접수된 단체 참배 신청 건수는 모

두 25곳, 5천122명이다.

특히 5·18 민주정신의 소중함을 어린이들에게 일깨워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건립된 ‘5·18 어린이 체험학습관’의 방문도 줄줄이 예약돼 있다.

이달 들어서만 모두 12곳 어린이집, 다음달에는 20곳의 어린이집 원생들이 5·18 체험학습관을 찾아 체험학습을 한다. 참배객이 급증한 이유는 올해가 5·18 민중항쟁 30주년인데다, 5·18 민주묘지가 전국 초·중·고교의 수학여행·소풍 장소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또 열린 추모공간을 표방한 5·18 민주묘지관리소의 묘지 운영방

식도 수 많은 참배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하는데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5·18 민주묘지관리소 관계자는 “30주년을 맞아 전국의 각 학교에 5·18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직접 방문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참배객 수가 예년보다 5배 가량 더 많이 올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7년 5월 5·18 민주묘지 조성이 완공된 이후 이날 현재까지 묘지를 다녀간 참배객 수는 모두 836만3천45명이다.

/이종행 기자 galee@kwangju.co.kr

“다시 결혼하면 지금 남편은 NO!” 기혼여성 70%

남성은 47%

기혼여성의 70%가 ‘다시 결혼하면 지금 남편과 안하겠단다’고 밝힌 조사 결과가 나왔다.

KBS 방송문화연구소는 7~12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8천494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결혼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7%가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38.5%, ‘할 필요 없다’는 2.8%였다고 14일 밝혔다. 결혼을 꼭 할 필요가 없는 이유로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 61.8%

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중 기혼자(4천755명)를 대상으로 ‘다시 결혼을 한다면 지금 배우자와 결혼하겠나’고 물은 결과 ‘아니오’라는 응답이 59.2%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아니오’라고 답한 여성(2천333명)의 비율은 71.9%, 남성(2천422명)의 비율은 46.9%였다.

또 미혼자(3천433명)를 대상으로 ‘결혼하고 싶었나’를 물은 결과 남성(1천724명)의 13.6%, 여성(1천708명)의 25.4%가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연상녀-연하남의 결혼에 대해서는 전체의 82.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01분 해질 19시 05분
달돋이 05시 56분 달질 20시 01분

오늘도 눈올까?
바람이 강하게 불며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다.

지역	기온
광주	흐린맑음 0/14℃
목포	구름맑음 3/12℃
여수	구름맑음 3/11℃
완도	구름맑음 3/12℃
구례	구름맑음 1/14℃
애남	구름맑음 1/13℃
장흥	구름맑음 1/13℃
고흥	구름맑음 2/13℃
순천	구름맑음 3/13℃
영광	구름맑음 1/11℃
진도	구름맑음 2/12℃
전주	구름맑음 1/13℃
남원	구름맑음 0/13℃
목성도	구름맑음 3/8℃

지역	기온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풍~동풍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풍~동풍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풍~동풍	1.0~2.0m

지역	기온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풍~동풍	0.5~1.0m	목포 02:41	07:51
남해 서부 앞바다	북풍~동풍	0.5~1.5m	14:44	19:56
남해 서부 앞바다	북풍~동풍	0.5~1.0m	여수 09:24	03:17
남해 서부 앞바다	북풍~동풍	1.0~2.0m	21:51	15:2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6(금)	17(토)	18(일)	19(월)	20(화)	21(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3/16	5/19	8/21	11/20	12/18	13/20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제주서 매개모기 확인

이제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제주지역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기유충 서식지로 의심되는 물웅덩이가 발견되면 모기를 방제할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일본뇌염 환자는 지난 2007년 7명, 2008년 6명이 발생했으나 지난해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침다리애송장벌레 발견

지리산 등서 국내 최초로

국립생물자원관(관장 김중천)은 딱정벌레의 일종인 ‘침다리애송장벌레(학명 Prionocheata sibirica Reitter)’를 국내 최초로 발견, 학계에 보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동물 사체를 먹고 살아 자연 생태계의 청소부 역할을 담당하는 환경정화곤충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이 곤충은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산, 경북 문경새재, 강원 오대산 등에서 처음 발견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리산 세석 대피소

화석연료 시대 마감

지리산 세석과 설악산 중창 등 국립공원의 고산지 대피소에 화석연료 발전기 대신 태양광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가 사용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4일 올해 지리산 세석대피소 등에 소수력, 태양광, 풍력 발전 등을 도입해 고산지 대피소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간 3만명의 탐방객이 이용하는 지리산 세석대피소는 올해 말까지 경유 발전기를 철거하고,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담양 대나무축제

Damyang Bamboo Festival

2010. 5.1(토)~5.5(수)

주최: 담양군, 후원: 담양군민회, 담양군민회, 담양군민회, 담양군민회

주최: 담양군민회, 후원: 담양군민회, 담양군민회, 담양군민회